정교회주보

제2517호

2025년 3월 23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 3 주일
십자가 경배 주일

성 니콘 사제순교자와 그의 성 199인 제자순교자들

(제6조 • 조과 복음 6)

* 조과-'찬양되시는 주여' 부르지 않음.
* 대영광송 다음 '십자가 경배 의식' - 23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삼성송' 대신에 ····· 230
- 사도경 : 히브리 4,14~5,6 ····· 230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3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에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사진 설명

성반(聖盤)

성반(사진)은 은 또는 금으로 도금된 받침대가 있는 접시 모양의 성물이다. 성반은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주님 탄생 구유, 주님의 희생, 성모님의 아기집 등이 그것이다.

'봉헌 예물 준비 의식'을 통해 성반(오른쪽 사진) 중앙에 '하느님의 어린양'(성찬예배에서 성체로 변화한다) 몫을 올려놓는다. 어린양 왼쪽에는 성모님 몫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사, 예언자, 사도, 교부, 순교자, 수도자, 자선 성인, 주님 선조,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그날 축일 성인, 그날 거행되는 성찬예배 제정 성인의 몫이 놓인다. 어린양 아랫부분에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의 몫이 놓인다.

이로써 성반 위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또한 성당 축성식에서 거룩한 제단에 안치하는 순교자의 성해를 모시고 행렬할 때에도 성반을 사용한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힘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대사순절 중간에 있는 십자가 경배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앞에는 거룩한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경배하고, 영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없애고 덕망을 가꾸어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한 성가 가사에 따르면 십자가는 '무적의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정말이지,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 성호를 긋고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니며, 십자가 목걸이를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영적 힘과 성화(聖化)를 위한 원천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에 경배하거나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작용하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심을 확고히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에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로마서 12,2) 알고자 애쓰며, 내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결한 피로 세우신 교회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성사 생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성령의 은총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십자가는 '마법적인' 물건이 아니라 '평화의 무기, 무적의 트로피'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다가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다가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연히 십자가는 무생물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한때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왕의 보좌이자 사람들에게 축복과 성화와 은혜를 주는 원천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고귀한 능력과 힘을 통해 남은 대 사순절 기간 영적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유자 그리스도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악마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천사들과 성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당신 마음에서 비치는 빛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귀중한 단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 단어는 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성 요한 크론스타트(1829-1908, 러시아인 사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 중에서

설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루가 9,11)

위 성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적인 치유들, 이를테면 중풍병자가 다시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어간 일, 허리가 굽은 여인의 허리가 곧게 펴진 일, 하혈병(下血病)을 앓는 여성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멎은 일, 앞을 못보는 소경이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된 일, 듣지 못하던 이의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말 못하던 이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된 일, 나병(癩病, 한센병) 환자를 낳게 하신 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 등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을 신체적인 질병에만 국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또 소외받고 멸시당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영적인 치유 또한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괴로울 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영적인 위기와 정서적인 고민과 고통, 불신과 의심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겠습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월 25일(화)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희보 성당의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충만한 은총과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3월 25일(화) 오전 9시
  성모 희보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수요일(3/26) 오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금요일(3/27) 오후 6시
  제 4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바로 잡습니다

지난 주보(2516호) 1면의 사진 설명 중 「*성별십자 : 성작의 봉헌물을..,」에서 '성작'은 '성반'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알 림

▦ 오늘은 십자가 경배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주일로, 금식과 예배와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힘을 주어서 남은 기간을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님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 대 주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토요일 저녁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주일학교 학생들 모임이 줌(zoo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는 각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NCCK 정책협의회 참석

지난 3월 17-18일, 파주에서 '2025 NCCK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끝이 없는 용서

어느 수도자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해 피민 사부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형제여, 인간에게 관용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겠소?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잘못한 이를 일곱 번씩 일흔 번, 다시 말해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